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 박차 ‘꿀벌 감소’ 위기 정면 돌파

무주군 치매안심센터-무주경찰서, 실종 예방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이 치매 환자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무주군은 무주군보건의료원 4층 치매안심센터 배움터에서 무주경찰서와 ‘치매 환자 등 실종 제로화(Zero)’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진표 무주군치매안심센터장과 김은희 무주경찰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치매 환자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치매 환자 등 고위험군의 실종 예방과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정보 공유 △치매 의심 환자 검진 연계 및 지문 사진 등록 활성화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관리 사업 지원 △치매 인식개선 교육·홍보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치매안심센터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조기검진실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무주군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 실종 예



무주군은 무주군보건의료원 4층 치매안심센터 배움터에서 무주경찰서와 ‘치매 환자 등 실종 제로화(Zero)’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 치매안심센터는 무주군보건의료원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족카페와 검진실, 프로그램실, 원터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일대일 맞춤형 등록관리서비스를 통해 치매 환자와 치매 고위험군,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서비스를 운영하며,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 물품 제공·대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이와 함께 치매 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등 예방 프로그램과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 치매 가족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 파트너 양성과 치매 극복 행사, 건강 걷기 행사 등도 병행하고 있으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가맹점과 치매극복단체 운영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무주군에서는 치매 환자가 지체장애 1급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4개 면 4개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

장수군, 지원 인원 272명·연령 만 80세까지 확대

장수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올해 검진 지원 인원을 기존 180명에서 272명으로 늘리고 지원 연령도 기존 만 51세부터 70세까지에서 만 51세부터 80세까지로 확대했다. 검진 대상자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1946년부터 1975년 사이 출생한 여성 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다.



이번 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 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5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군은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돼 여성농업인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진 기관은 남원의료원과 진안의료원, 전주병원이며 남원의료원·진안의료원의 경우는 직접 병원에 방문하는 원내검진 방식으로 전주병원은 올해부터 7개 읍·면을 순회하며 검진하는 이동검진으로 운영된다.

검진대상자인 여성농업인은 ‘농업·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장수군은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해 검진비 22만원 중 2만원 내외만 지불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상담창구 운영

진안군은 19일 군 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상담

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창구에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등을 안내하고,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뒤영벌 활용 화분매개 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진안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 및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소실대응 꿀벌 대체 화분매개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비를 포함한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주요 소득 작목인 멜론과 딸기 재배 단지 10.0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는 백운농협 멜론공산출하회(대표 진병호, 26농가)와 진안고원 딸기연구회(대표 정유복, 12농가) 등 총 2개소 38개 농가다.

꿀벌은 꽃의 꿀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꽃가루를 옮기는 대표적인 화분매개 곤충으로, 식량 생산과 생태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질병 확산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이어져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에 비해 뒤영벌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고 수정 효율 또한 우수해 꿀벌을 대체할 화분매개 곤충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멜론과 딸기는 벌을 통한 수분이 작물의 품질과 상품성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수급을 대체함으로써 노동력 절감은 물론, 기형과을 감소와 당도 향상 등 품질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참여기업 모집

무주군이 직장인들의 점심 식비 부담을 덜고 지역 외식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외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해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 예정인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한 외식 금액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외식 이용 금액의 20%이며 최대 5개월 동안 지원이 이뤄진다. 참여 신청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 푸드플랜팀(063-320-2780)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사항은 무주군청 누리집 내 무주소식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은 균형 누리집과 SNS(인스타그램·카카오톡), 읍·면 이장회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참여 신청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 푸드플랜팀(063-320-2780)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사항은 무주군청 누리집 내 무주소식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은 균형 누리집과 SNS(인스타그램·카카오톡), 읍·면 이장회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진안군, 이경영 군수 권한대행 등 참여 ‘농촌일손돕기’

진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내서며 농촌 현장에 힘을 보탤다. 특히 이번 일손돕기는 단순한 농작업 지원을 넘어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현장 점검까지 함께 추진하며 농가 안전과 영농환경 점검에도 나섰다.

19일 이경영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군 농업정책과와 정천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30여 명이 정천면 용정마을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참여 직원들은 사과 적과 작업을 도우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농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날 이경영 부군수는 농촌일손돕기 현장에 함께한 데 이어 재해 취약지역 현장 점검점검도 실시했다. 현장을 직접 살피며 재해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위험요인과 대비 상태 등을 확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참여 직원들은 사과 적과 작업을 도우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농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날 이경영 부군수는 농촌일손돕기 현장에 함께한 데 이어 재해 취약지역 현장 점검점검도 실시했다. 현장을 직접 살피며 재해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위험요인과 대비 상태 등을 확인했다.

지역 소식통

장수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합동 캠페인 실시

장수군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장수를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장수군청, 장수경찰서, 장수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서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장수읍내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읍내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방문해 △청소년 이성 혼숙 금지 사항 준수 여부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및 제공 금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관련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최근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악용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업주들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안내하고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며 청소년 보호 문화 확산에 힘썼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집중안전점검 지휘부 현장점검 실시

진안군은 19일 월량체육공원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지휘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됐으며, 오는 9월 도민체전 개최를 앞두고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관계 공무원과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건축, 전기, 소방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경기장 및 부대시설 구조 안전상태, 전기설비 관리상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비상대피 동선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염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